제주 ESS 신산업 수익성 확보가 발목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시 요금 비싸고 방전 시간엔 돈 못 받는 구조
현재 양수발전 준한 단가 산정… 수익 확보 불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운영규칙' 변경안 주목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시간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사업을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에너지저장장치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할 수 있어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하면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 출력제한 횟수는 지난 2015년 3회(152MWh)에서 2017년 14회(1300MWh), 2019년 46회(9223MWh), 2020년 77회(1만9449MWh)로 급증했으며 올해 초 태양광 발전이 처음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전력 공급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녹색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급격한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이다. 일부 기술(리튬이온전지·수퍼 커패시터·플라이휠)은 상용화 수준 단계에 도달했으나 그외 기술은 초기 기술개발 수준이다.

리튬이온전지는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로 해외수출이 가시화됐으나 전반적인 ESS는 원천부품소재 기술은 미흡하다. 가정용 ESS의 실증은 추진중이나 초기단계이고 향후 가장 큰 수요가 예측되는 전력망용 대규모 ESS 실증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익성 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생산을 위한 대기시간까지 요금에 포함되고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차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의 kWh당 평균판매 단가는 112.96원이다. 수력 81.86원, 태양광 70.0원 원자력 59.59원에 비해 비싸다.

제주도 관계자는 "ESS는 현재 양수발전에 준해서 단가가 산정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안되는 구조로 충전을 할 때는 전기가 싸야 하는데 비싸고 방전 시 방전시간 만큼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지침을 변경하면 사업성을 얻을 수 있다"며 "산자부 발전비용평가위원회에 현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halla21@ihalla.com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선산업 성과와 재도약 전략을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3호 공약-더큰내일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새로운 방역 전환 점진적 모색"

"고지 바라보며 힘 내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는 "1차 접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백신 접종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도 약속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원희룡 '더큰내일 일자리 정책' 공약

기업에 고용 연계 훈련 의무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6일 미래 신산업 분야 벤처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 고용 연계형 투자 대폭 확대 등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는 연평균 7%씩 감소했으며,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일자리 통계를 기만하고 있다"며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한 중간지대 일자리 소멸, 민간 부문 고용의 심각한 양극화, 대안이 될 수 없는 생계형 창업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 전 지사는 '더큰내일 일자리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법' 이상의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에 대해 파격적인 종합 지원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일자리는 우리 삶의 근간이며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문연교차에서

소상공인 지원 위한 의회·제주도의 협력

강 성 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제주지역 경제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제주도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 가중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7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 3237억원 중 5.2% 수준이다. 이 중 간접지원 114억원을 제외하면 직접지원 예산은 56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1.7%에 그치고 있다.

거리두기로 생업 피해 가중
2만5000여 곳 추가 지원 전망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배제된 표면적인 원인은 국가추경을 통한 지원규모가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불황기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자재정과 흑자재정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신축성 있는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창안했다. 즉 실업난, 국가재난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큰 정부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주장과 비교해보면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산으로 제주도가 지방채 상환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90억원을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난상황에서 도민들의 재정수요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재정운용정책에서 우선이라는 것이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세출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취약계층 지원 관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생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민생경제활성화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의 작은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여건개선도 필요하다. 업종별 상황과 확진자 발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다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제주도에서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 2만5000여 곳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야흐로 금번 제2차 추경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략적으로 수렴하는 집행부의 혜안과 조속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1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휘호대회 공모전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lligraphy Association

조선후기 명필인 추사 김정희선생의 추사체 완결지 및 불후의 명작 세한도의 탄생지로서 그의 순결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제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근간으로 새로운 문예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21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휘호대회(공모전)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휘호대회를 비대면 공모전으로 전환 개최합니다.

• 참가부문 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
• 작품규격 한문, 한글, 문인화
: 70×135cm(전지), 35×135cm(2절지) / 서각: 가로70×140cm 이내
• 참가신청
- 원서 교부 2021년 9월 1일(수) ~ 10월 1일(금)
; 제주서예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다운로드
- 작품 접수 1) 접수: 2021년 10월 1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2) 우편 접수: 2021년 10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마감 시간 이후의 도착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장소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제주시 오남로 6길 24(2층)
☎ (064)744-4959, 070-4212-4959 / 010-3698-4959 Fax.(064)744-4958
• 출품료 없음 / • 명 제 자유
• 시상내용 - 종합 대상(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패 및 상금 3백만원
- 부문별(한문,한글,문인화,서각) 대상(4명): 서귀포시장 상패 및 상금 1백만원
- 우수상(한문,한글,문인화,서각) 8명: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 특선 및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이사장 상장
• 심사 및 발표 - 심사: 2021년 10월 3일(일)
- 발표: 2021년 10월 5일(화)
본 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및 개별통보
• 시상식 - 일시: 2021년 10월 30일(토) 오후5시 - 장소: 문예회관 1전시실
• 전 시 - 장소: 문예회관 1, 2전시실
- 일자: 2021년 10월 30일(토) ~ 11월 4일(목)
※ 표구비는 본인 부담이며, 미표구시는 낙선 처리합니다.
※ 상장은 전시기간중(전시장에서) 배포됩니다.
• 작품반출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3일 이내 직접 반출 가능
※ 작품 반출 시간(11월 4일 오후 4~5시) 내 미반출 작품에 대해서는 본 학회에서 분실 또는 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초대작가제도 소정의 점수(15점)을 이수하면 본 대회 초대작가로 추대함.
(종합대상8, 대상6, 우수4, 특선3, 입선1)

주최 |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 주관 | 제21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휘호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신천리마을협동조합원 모집 안내문

신천리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따라 마을협동조합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시고, 함께 하실 조합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7.

신천리마을협동조합 이사장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1. 9. 13.(월) ~ 2021. 9. 30.(목). 16:00
연휴. 주말 제외 (2주간)

2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신천리사무소

3 신청자격
1) 만 20세 이상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2) 신천리마을협동조합 정관 제10조 [조합원의 자격]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본적지가 신천리인 자 또는 10년 이상 신천리에 거주한 이주민)

4 문의사항
• 신천리사무소 T. 787-0157